

유희동 기상청장, 전북 대설 지역 현장 방문

- 철저한 위험기상 감시로 재해 피해 방지에 노력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는 전라북도 순창군 일대의 대설 현장을 12월 21일에 방문하여 점검하였다.

전북 순창군은 작년 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올해도 12월 16일~17일 눈이 내린 이후 다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작년 농가시설의 대설 피해 복구 현황과 대설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였다.

* 2022.12.23. 북흥(순창군) 최심적설 63.7 cm 기록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심적설 19.4 cm를 기록(21일 15시 기준)하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순창군 일대의 대설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기상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붙임 대설 현장 방문 사진

담당 부서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형국 (063-249-3202)
		담당자	사무관	우남철 (063-349-3246)



| 순창군 현장 방문(오른쪽에서 첫번째 유희동 기상청장) |



| 순창군 현장 방문(오른쪽에서 두번째 유희동 기상청장) |